

파나마 운하도 바짝 마른다... '중남미 젓줄' 대란 오나

올해 역대급 가뭄에 사상 최저수위 기록 전망 美 언론 "엘니뇨 현상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가 최근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 운하에 물을 공급하는 호수가 올해 역대 최저 수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 CNN방송은 13일(현지시간) 파

나마 운하의 전례 없는 가뭄 현상이 엘니뇨 현상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물류의 동맥인 파나마 운하는 세계 교역량 4-5%를 책임지고 있는데, 인근 가뭄 호수의 물을 끌어와 선박을

이동시킨다. 따라서 가뭄 호수의 수위가 파나마 운하의 흘수(물속에 잠긴 선체 깊이) 조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가뭄으로 가뭄 호수의 수위가 떨어지고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파나마운하청(ACP)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가뭄 호수 수위는 79.7피트(24.3m)인데 다음 달 1일 71.1피트(21.1m)로 내려간 뒤 계속해서 감소해 8월14일에는 7.9피트(2.7m)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

졌다. 가뭄이 계속되자 파나마운하청은 최근 흘수 연속 제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흘수 제한이 시행되면 배를 덜 가라앉혀야 하므로 해운업계는 컨테이너 선적량을 줄이거나 화물 운송 비용을 인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뭄 호수는 파나마 운하뿐 아니라 파나마 시티 등 인근 도시에도 물을 공급한다. 지난달 파나마 환경부는 가뭄에 따른

환경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특히 농가가 밀집한 서부 치리키를 중심으로 농작물 수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예측이다. 파나마운하청은 "파나마 정부가 선포한 기후 비상사태는 파나마 운하가 담수가 부족한 현실에 대해 언급해 온 바를 강화해준다"고 밝혔다. 문제는 엘니뇨 현상으로 파나마 등 중남미 지역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엘니뇨는 적도 지역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올 하반기 엘니뇨 현상이 발생 확률이 커지고 있다고 세계기상기구(WMO) 등이 전망했다. 과거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지구 곳곳에서 폭염과 홍수, 가뭄,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가 일어났고 올해 엘니뇨가 발생하면 내년 또는 2024년이 기록상 가장 더운 해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연합뉴스



법원 출석 후 기자회견하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불법 기밀 반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기소인부 절차를 마친 뒤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트럼프내셔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가 "선거 개입 시도"며 "가장 사악하고 악랄한 권력남용"이라고 말했다. /베드민스터 AFP=연합뉴스

영국해협 건너 불법 이민자 하루에만 616명

올해 최대 기록...수백 총리 '머쓱'

리시 수백 영국 총리가 영불해협을 건너는 불법 이민자 수가 줄었다고 공언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하루에 600명이 넘는 난민이 보트를 타고 영국에 몰려와 총리가 머쓱한 상황이 됐다. 13일(현지시간) 영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지난 주말인 11일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 해안에 상륙했다가 잡힌 불법 이민자는 61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모두 12개의 작은 보트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오려 했다고 영국 내

무부가 밝혔다. 600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가 하루에 불잡힌 것은 올해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4월22일 497명이 적발된 바 있다. 공교롭게도 그 직전 영국은 강력한 단속책으로 불법 이민자가 줄어들었다며 자화자찬을 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영불해협을 건너려다 체포된 이들은 8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약 1만명보다는 약 2천명 적었다고 BBC는 전했다. 이에 수백 총리는 지난주 자신의 불법 이민 억제 정책이 통하고 있다고 공

언했다. 수백 총리는 지난주 도버를 방문해 불법 이민자를 줄이는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민자 수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수백은 BBC와 인터뷰에선 "불법 이민 억제 정책이 효과를 보여 그 수가 5분의 1가량 줄어들었고, 특히 알바니아인 불법 이민자는 90%나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올해 가장 많은 불법 이민자가 몰려든 것이다. 이에 영국 의회에서선 불법 이민자가 줄었다는 통계를 너무 믿을 순 없으며, 선불리 정책 성공을 얘기하는 것은 시가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기상이변...유럽서 1980년 이후 근 20만명 사망

혹서 희생자가 81% 차지...경제 피해는 홍수가 가장 커

1980년 이후 유럽에서 기상이변으로 20만명에 가까운 희생자와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유럽 환경청(EEA)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EEA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1980년에서 2021년 사이에 홍수와 폭풍, 혹서와 흑한, 산림 화재와 산사태로 인한 희생자가 19만5천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EEA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5천600억유로에 달했으며 보험 보상을 받은 것은 30% 정도인 1700억유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희생자 가운데는 혹서로 인한 피해

자가 81%로 가장 많았으나 혹서로 인한 경제 피해는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반면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체의 2%에 불과했지만 전체 경제적 피해의 56%가 홍수로 인한 피해였다고 EEA는 설명했다. EEA는 이어 노령층일수록 혹서에 취약하기 때문에 노령인구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EA는 대부분 국가가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보건정책을 통해 고온 현상이 심화될 때 호흡기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고 있지만 탈수나 열사병에 대한 대비는 불충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지구적 기온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농업이 파괴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가 1.5℃ 올라가면 이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이 현재 90억유로에서 금세기말에는 250억유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구 온도가 2℃ 올라가면 310억유로, 3℃ 올라가면 450억유로에 이르는 연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 텐진 아파트 두 곳 연쇄폭발, 3명 사망

26가구 파손, 부상 다수...공안 "용의자 폭죽 터뜨려"

중국 텐진의 아파트 두 곳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인민일보 등 현지 매체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0분경 텐진시 허둥구의 아파트 두 곳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26가구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됐으며, 34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두 아파트는 2m가량 떨어져 있으며 차량으로 9분, 도보로는 24분 걸린다. 현지 매체와 소셜미디어(SNS)에 공

개된 영상에는 폭발 직후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고 아파트 곳곳이 폭격을 당한 것처럼 부서져 폐허를 연상케 했다. 현지 소방대는 소방차와 소방대원들을 투입해 진화했으며 4대의 구급차를 동원, 피해자들을 구조했다. 공안은 "폭발은 위안추이중리 서취(社區·구 아래 행정단위) 아파트 13동 301호와 평치리 서취 6동 603호에서 각각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안은 방화 용의자 마모(46)씨를 체포했다. 공안은 그가 폭죽을 터뜨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와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베트남 '경찰서 총기 피습' 수사

베트남 당국이 지난 11일 중부 다락성에서 발생한 공안 관서(경찰서) 총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의 또 안 쏘 대변인은 사건 용의자 18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인원은 총 45명으로 달한다. 쏘 대변인은 "용의자 수를 제한하지 않고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11일 오전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인 다락성의 공안 관서 2곳이 괴한들로부터 총기 습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안 대원 4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안전기원제 고사
▶ 시 제 상
▶ 제 사 상
▶ 고 사 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부패